



권상우·최강희 코믹 케미

KBS 2TV '추리의 여왕' 오늘 첫 방영

“사실 제가 추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추리극을 좋아해서, 대본을 보더니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드라마가 제가 좋아하는 첫 추리극이 될 것 같아요.(웃음)”

오는 5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KBS 2TV 새 수목극 '추리의 여왕'에서 사설탐정 유설욱 역을 맡은 배우 최강희(40)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유설욱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대 동안'에 호기심 많고 4차원의 푼수기와 '허당'의 빈틈까지 지닌 사랑스러운 여자. 긴 치마를 필릭이며 대형마트 카트를 헬레벌떡 끌고 다니는 게 아무리 봐도 사견 해결 전문가 같지는 않다.

그러나 사건만 일어났다 하면 눈을 반짝이며 숨겨둔 추리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태 탐정녀'다. 그런데 정작 최강희는 평소 추리극을 잘 몰라 참고한 작품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른 조유의 캐릭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최강희는 3일 열린 '추리의 여왕' 제작발표회에서 설욱 캐릭터에 대해 “그냥 아줌마”라며 “남편은 검사고, 경찰시험을 10년간 꿈꿔왔지만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건현장을 기웃기웃하다 형사 완승(권상우 분)을 만나면서 일들이 터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역할 제의를 받았을 때도, 권상우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촬영 시작할 때도 ‘이 드라마는 내게 선물이다’란 생각이 들었다”며 “어떤 선물일지는 저도 조금씩 풀어보는 중인

데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함께 호흡하는 권상우씨 등 다른 배우들이 절 ‘서포트’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실제로 대본을 봤을 땐 제가 뭘 많이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다들 잘해주셔서 참 재밌었다”고 말했다.

최강희는 워낙 동안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나이가 마흔이 됐는데도 반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이에 대해 “옛날에는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그랬는데 이젠 오히려 반갑고, ‘선생님’ 소리는 서운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촬영장에서 ‘아줌마’란 소리는 듣기가 좋다. 완승이가 그만쯤 툭 쏘게, 맛있게 ‘아줌마’라고 불러준다. 듣기 경쾌하다”고 덧붙혔다.

완승 역을 맡은 권상우는 “최강희씨가 아줌마 탐정 역할이지만 정말 아줌마 같은 분이 주인공이었으면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다”며 “강희씨가 가진 이미지가 사춘기 소녀 같은 느낌이라 현장에서 재밌는 리액션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01년 SBS TV ‘신화’ 이후 16년 만에 한 작품에서 또 만났다. 권상우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전 신인이고 강희씨는 이미 연기를 많이 한 연예인이라 신기하게 쳐다봤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3년 만의 드라마 복귀가 부담된다면서도 “극

본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있고 재밌어서 선택했다”며 “대뷔 후 이렇게 즐겁게 현장에 온 적이 있었다 싶을 정도로 가장 에너지 넘치고 기분 좋게 촬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목이 ‘추리의 여왕’인만큼 여왕인 최강희씨가 가장 빛나야 할 때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배우들이 진심으로 강희씨를 서포트하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며 “제가 맡아지는 것도 즐겁고 주저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강희에 대해 “유설욱과 싱크로율이 100%”라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생활 속에 널린 범죄 단서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공유하는 ‘생활밀착형 추리드라마’라고 제작진은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또 범죄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휴먼드라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권상우, 최강희 외에 박준금, 안길경, 이원근, 신현빈, 김현숙 등도 출연한다.

연출은 2013년 ‘굿 닥터’, 2014 ‘힐러’ 등을 만든 김진우 PD가 맡았다. 이 드라마는 또 이성민 작가의 작품으로, 경력자가 대상 극본 공모작 수상작이다.

지상파 수목극 1위를 달렸던 ‘김과장’ 후속이라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에 대해 권상우는 “전작이 잘돼서 PD님도 실은 좋아하고 있다. 덕 보는 게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저희 드라마 자체로도 자신이 없는데 잘돼서 KBS에 효도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협뉴스

허지웅 ‘미운우리새끼’ 하차

가수 이상민 후속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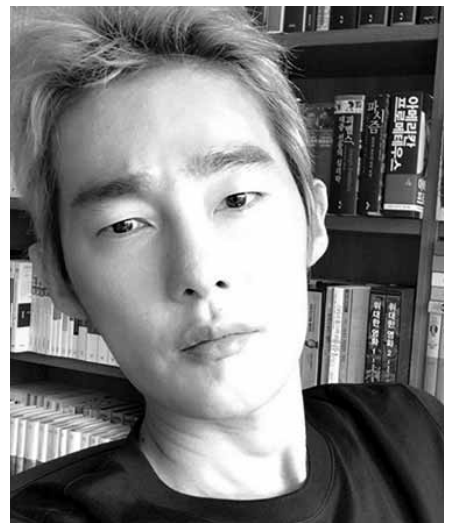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사진)이 SBS TV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우리새끼’에서 하차한다.

SBS 관계자는 3일 “허지웅씨가 본업인 작가 일에 집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제작진과는 계속 얘기해 왔던 사안인데 하차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주 더 촬영해온 것으로, 오는 7일 방송에서 허지웅씨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지웅은 그동안 ‘미운우리새끼’에서 깔끔한 생활스타일 등 특이한 매력의 일상을 보여줬다. ‘민지웅(민지+허지웅)’, ‘정색남(청소하는 색시한 남자)’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허지웅의 바통은 가수 이상민이 이어받았다.

그는 최근 사업실패로 인해 수십억원의



빚이 있음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SBS 관계자는 “이상민씨가 이미 첫 촬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kbc광주방송, 봄 맞이 개편

‘TV 블로그 폼지락’ ‘지식 통조림’ 등 생활밀착프로 확대

‘시사터치 파파부파’ 포맷 변경 ... 박구용 전남대 교수 출연

kbc광주방송이 3일부터 봄철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신규 프로그램 ‘생방송 TV 블로그 폼지락’(월~목 오후 6시30분)은 요일별 색채화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 심층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문자참여와 LTE 현장을 연결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을 지향한다.

‘지식 통(通)조(調)림(林)’(월~금 낮 12시50분)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5분 분량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터치 파파부파’는 ‘박구용의 시사터치 파파부파’(토 오전 9시)로 포맷을 바꾼다.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이남재 시사평론가, 이정우 ‘더 좋은 가치연구소’ 실



장이 진행을 맡아 지역 현안을 살펴본다. 또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월~목 오후 6시10분), ‘방방곡곡 남도잡e’(금 오후 6시)는 지역 밀착형 내용을 강화한다.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월화드라마 <하숙집 딸들>(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세상발전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유적도크스 가요1번지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20 문화사색(재)	55 닥터 365
2	10 TV 소설 진품명품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고실	00 뉴스브리핑
3	10 KBS특별기획 2부작 초원의 제국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까 소나타 2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7	00 KBS 뉴스7 35 리얼도크, 날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정신이슈	50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감성툰 고맙습니다	00 월화드라마 <안락한 아내>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깃속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천상의 컬렉션(재)	10 하숙집 딸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트루밥쇼(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 24 2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0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가 챗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양행폭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영문 시래기국과 연어구이>	15:35 모피와 친구들 - 로켓시터들 가라!	<개척의 땅 미국 남서부기행 - 로켓시터들 가라!>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콩	<어느 환한 봄날에 - 봄 날의 로맨스>
07:00 레이디 비그	12:10 미스터 휴먼 다큐(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1:50 EBS 디큐프러리
07:30 로보카 폴리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7:15 연마 깨투리	<민지-민지는 왜 작아졌는가>
07:45 출동! 슈퍼왕스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죽음보다 더한 사랑 - 호스피스 병동 외>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심판리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레이디비그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4:30 장수의 비밀(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기적같은 생존 - 위급신생아병동 외>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5:00 요술 상자	19:00 너티너츠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5 내 친구 아서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선(클래식)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9:55 극한직업	
09:40 금쪽같은 내 새끼(재)		<어시장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음 3월 8일 辛酉)	
子	48년생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극복되리라. 60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72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전 노수다. 84년생 상호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지도 저러지도 못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60, 28	午	42년생 한동안 잠잠했던 현상이 다시 시작되리라. 54년생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는 법이다. 66년생 형세를 뒤집을만한 신촌의 새색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78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90년생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21,04
丑	49년생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내일을 기하게 된다. 61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나 잘 살펴야 하니라. 73년생 생 가까운 이와 함께하면서 가다가 잡혀겠다. 85년생 기급적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2, 74	未	43년생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기리라. 55년생 사세 부덕이 그렇게 됨을 알라. 67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79년생 동만하는 국세에 활로가 보인다. 91년생 집요해야 이루어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4,05
寅	50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62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74년생 고 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86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3, 19	申	44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56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을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80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66
卯	51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잊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75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87년생 자신이 우려하여 왔던 바에 못 미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3, 76	酉	45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7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에 영향을 미치리라. 69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81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28, 13
辰	52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과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64년생 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것을 감안하고 임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76년생 머지않아 적응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임하라. 88년생 한꺼번에 몰리는 형태이다. 행운의 숫자 : 05, 89	戌	46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자. 58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0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82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07
巳	53년생 오래 센스 하다가는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속이아 어쩔만큼 걸음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77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대박하게 넘어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2, 84	亥	47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엄청난 낭비로다. 59년생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니 노심초사는 버려도 된다. 71년생 현재는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미래를 맞이하리라. 83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1, 5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